

## 니느웨의 영적 대각성

온 3:1~10

###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종종 ‘과거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 포기했던 삶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얻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제 2의 인생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요나는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지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흘러간 시간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장 1, 2절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사람들은 자기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망친 사람에게 다시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망친 요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요나에게 두 번째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스로, 배로, 배 밑창으로 계속 내려갔던 요나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요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 또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떠났지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는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무르고 맙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그저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해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75세 나이에 길을 떠납니다.

###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신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처음 베드로의 배를 사

용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명해 많은 고기를 잡게 했을 때 베드로는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십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적 성격이요, 열심인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떠나리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계집종의 질문에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며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결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아픔 때문에 자기가 걸어가던 신앙을 포기하고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 때 새벽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두 번째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때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밖에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깨어지는 사랑으로밖에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배반하는 사랑으로밖에 당신을 좇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에까지 내려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아브라함처럼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일깨워주시고 거룩한 목표를 향해 살아가도록 격려해줍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으로 인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의 한 복판에 던져져있을 때, 주님은 그 고난과 어둠을 헤치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그리고 언제나 인자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손을 붙잡고 그 분이 준비한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용서해줍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 용서해주리이까? 일곱 번 하리이까?” 이 말에 주님께서 “일곱 번 뿐만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고 대답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하게, 방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결국엔 사명을 수행했던 것처럼 나도 지금은 불순종하고 나중에 순종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로 해서 범죄 한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만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수록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 가운데 더욱 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니느웨’에 선포된 메시지

도망쳤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찾아오셔서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민 23:19)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고 도망갈 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십니다. 그래도 계속 도망치면 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처음 부르신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스웨로 가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인류 역사상 최대의 부흥이 니스웨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3,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스웨로 가니라 니스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삼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사십일이 지나면 니스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전한 것은 다섯 단어입니다. ‘호드 아르바함 움 베니네베 네파케트’ 즉 ‘사십 일이 지나면 니스웨가 무너지리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예언입니다. 그저 짝막한 심판의 말을 했을 뿐입니다.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삼일길이나 되는 큰 성읍 니스웨를 다 행하지 않고 하룻길만 다니면서 이 다섯 단어를 외쳤던 것입니다. 아마 요나는 이렇게 외치면서도 니스웨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니스웨 백성을 뒤집어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을 만들고 땅을 가르고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심령에 꽂힐 때 그 심령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회에 움직일 때 사회가 변화됩니다. 요나가 이 단순한 복음을 전했을 때 니스웨 백성은 참회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스웨가 무너지는 요나의 외침에 니스웨가 뒤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니스웨에 일어난 변화가 5절에서 9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니스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굶은 베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스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굶은 베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스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찌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베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흑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쾌락을 즐겼던 자들이 입에서 밥을 끊습니다. 남을 호리기 위해 화려한 옷을 입던 사람이 굶은 베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하기 그지 없던 니스웨 왕이 권위의 상징인 옷을 벗고 상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재 가운데 앉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먹이지 말자. 짐승까지도 회개시키자” 그리고 모두 굶은 베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악한 것과 손으로 행한 것은 니스웨를 떠나라 명령합니다. ‘흑시 하나님이 니스웨를 긍휼히 여겨서 이 민족을 다시 구원하지 않으실지 아느냐 우리가 함께 부르짖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입니다. 그들이 내면이 변하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니스웨가 회개했을 때 복된 니스웨로 새롭게 변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사회 속에서 세계 속에서 이와 같은 니스웨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위해 일어나 외쳐야 합니다.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분의 이름으로 그 분의 마음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구원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40일 후에 니느웨를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무너뜨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려 했던 니느웨는 악이 가득하고 횡포와 더러움과 음란과 저주가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스스로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회개는 죄악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니느웨는 옛날의 니느웨가 아니요 새롭게 거듭난 니느웨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니느웨의 회개 이후의 모습입니다.

니느웨가 제 2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요나의 덕분이었습니다. 니느웨의 부흥은 요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요나와 같은 배를 탔던 사람들 모두 죽음에 직면해 공포 가운데 이끌려 갔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멸망의 땅 니느웨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은 모세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 아래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사 수장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더럽고 악하고 희망이 없다고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다시 찾아와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요나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순종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순종은 다섯 마디의 말을 되풀이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가 위대한 순종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란 자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무너지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은 위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등직한 반석이 되는 순종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은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업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업으면 내 삶은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 같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회복이 찾아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업혀 즐겁게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렇게 회개한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150년 후에 멸망한 것입니다. 이들의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긴 했지만 지속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해야하는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 앞의 회개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는 한 번의 회개입니다. 물론 이 한번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승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기 성찰을 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선택하자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첫 번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감찰' 즉 얼굴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를 향해 하나님은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인자와 사랑의 얼굴로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뜻을 결코 돌이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려는 뜻은 결코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저주를 위한 뜻은 언제든지 돌이키십니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 찾아오신 하나님  
요나에게 두 번째 찾아오신 것처럼  
니느웨에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리는 거룩한 삶,  
새 생명 새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